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갈락티온과 성 에베스티미 순교자

루가 제5주일

성 요아니키오스 대수사

제6조,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모두 가까이 와서' / 14, A 42
-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에페소 2,4-10 / 봉독서 310
- 복음경 : 루가 16,19-31 / 125, B 68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갈락티온과 성 에베스티미 순교자

결혼 제도는 거룩하고 부부 관계 또한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를 언급하며, 그리스도를 신랑에, 교회를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의 아름다움과 부부의 순결함을 교회 성인들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교회에서 11월 5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성 갈락티온과 성 에베스티미 순교자입니다.

영혼을 사랑으로 결합시킨 거룩한 결혼 화관만이 그들의 삶을 이어준 것은 아닙니다. 순교의 화관이 또한 그들을 결코 헤어질 수 없는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순교를 통해 그들은 죽음의 문을 지나 거룩하고 송고하게 영원한 나라의 화려한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결코 헤어질 수 없는 하나로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의 종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대가는 영혼과 육신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죽음은 끝이 났다.

성 대토요일 성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하에 머물던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고 꺼내주시는 모습이 있는데 이는 십자가로 죽음을 멸하시고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물론이요 영혼도 사라져 뼈만 남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다.

라자로가 죽어 무덤에 나흘간 있을 때 주님은 그를 깨우려 가신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잠자고 있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묻히지만 이는 단지 육신이 죽은 것이며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니다.

부자와 라자로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적으로는 영원한 삶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루가 16,19-25) 라자로와 부자 두 사람은 죽어서 육신이 땅 속에 묻혔다. 그러나 영혼은 살아서 서로 다른 곳에 머물게 된다.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부자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부자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부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즐기며 살았다. 그러나 그는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배품이나 자비심이 조금도 없었다. 한편 라자로는 가난 속에서 갖은 고통을 다 받으면서도 불평 없이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았다. 결과적으로 부자는 부와 권력을 무기로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살면서도 이웃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이 오

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 대가로 죽은 후에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라자로는 부자들이 버린 빵 조각으로 연명하고 병으로 인한 고통도 받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다. 라자로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 달라는 애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참으며 고통을 이겨냈기에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구복단 내용 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라는 내용이 있다. 바로 라자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는 갖은 고통을 다 받으며 살고 있으나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로써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라자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주는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적이 그대로 남아 우리 영혼의 삶까지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용서해 주셨듯이 나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하겠다. 그 누구에게도 미움, 저주, 시기, 불평, 원망 등과 같은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부자와 같이 저승에서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서나 화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님과 함께 평화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서로 사랑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눈여겨보고 보살피주는 마음으로 지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교부들의 가르침 4

- ▷ 당신이 만일 '파토스' (정념 :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그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자유로이 그것의 의지를 향해 남겨둘 수 있다. 그러나 파토스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당신의 마음을 그 의지에 그대로 둔다 해도 마음이 스스로를 일반적인 불안정과 위협에 처하게 하고 말 것이다. (성 테오판 은둔자)

- ▷ 하느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보내셨다. 만일 우리의 창조주가 쇠퇴와 죽음의 악취를 풍기면서 아주 짧게 이어지는 지상의 삶보다 더 빛나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더 좋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수 없다면, 그 얼마나 참담한 비극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성 니콜라스 벨리미로비치)

- ▷ 당신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이성과 자유 의지를 통해 타락하였으므로, 하느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은총으로 굳세어진 같은 무기(이성과 자유 의지)로써 타락한 상태에서 일어서야만 한다. (성 요한 크론스타트)

- ▷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왜곡된 지성을 그리스도의 지성과 바꾸고, 자신의 왜곡된 마음을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과 바꾸며, 자신의 왜곡된 기풍(氣風)과 정신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꾼다. (게오르기오스 (깁사니스) 수도원장 / 아토스 산, 그리고리우 수도원)

▶ 아타나시아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26일 금요일 로만 카브착 신부의 집전으로 이루어진 세례 성사에서 김 엘레나 교우가 세례를 받아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바자회

11월 11일 주일 성찬예배 후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셔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기여합시다.



주간 예식

- 11월 8일(목) 미하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천상의 모든 천사들 축일
 - 11월 9일(금) 성 벡타리오스 대주교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가브리엘, 미하엘, 라파엘 대천사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